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들의 해당병원 방사선과의 서비스 환경에 대한 인식정도

김천대학 방사선과

나 수 경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Apprentice toward the Medical Service of Department of Radiology

Department of Radiation Technology, Gimcheon College

Soo-Kyung N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nalysis of questionnaire about Radiotechnologist's medical services. The respondents were a student apprentice in university medical center, general hospital and minor general hospital.

The study was conducted during 1~20, Nov. 2003 and SPSS/PC⁺(ver.10.0) program was used for data extraction and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Most of respondents replayed that radiation room was clean. But in question of quality assurance of radiologic installation, only 48,3% of respondents replayed "common" or "good".
2. The degree of Radiotechnologists' expertise was appraised "excellent".
3. The respondents replayed that most of Radiotechnologists were kindness to his patients.
4. The respondents replayed that work time of Radiotechnologists was propper, but heavy works are loaded.

I 서론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21세기 의료방사선 분야는 디지털화로 인한 다양한 영상처리, X선 필름이 필요 없는 영상보관전달 시스템의 도입 및 압에 대한 3차원적 개념의 방사선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우리 모두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식수준이 높아져 환자 및 일반인들의 의료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고 모든 의료인들은 이러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의료서비스이며, 모든 의료인이 환자를 고객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제에서는 전국 병원에서 실습기간 중 해당병원 진료영상 의학과와 서비스 환경과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의료서비스를 어느 정도로 제공하고 있는지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조사방법

1) 조사기간 및 절차

조사기간은 2003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고, 총 520부의 준비된 설문지를 각 대학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직접 작성토록 하여 회수였으며 응답의 가치가 없는 6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분석방법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중에서 설문내용은 진단방사선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영역은 촬영실의 환경상태 6개 문항, 방사선사의 업무능력 정도 2개 문항, 연구능력 정도 2개 문항, 직업에 대한 만족도 1개 문항, 의료서비스 정도 7개 문항, 실습생의 소견 영역 8개 문항으로 총 6영역 26개 문항에 걸쳐 질문하여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분석에 필요한 자료 추출을 위해 SPSS/PC⁺ 프로그램 version 10.0을 이용하였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임상실습 대상병원의 소재지는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지역의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 및 준 종합병원에서 2003년도 임상실습을 마친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0개 대학 남·여학생 각각 308, 206명으로 총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학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무시하였으며 각 항목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실습병원의 지역별 실습인원 분포는 서울 및 경기 208명, 영남지역 163명, 호남지역 77명, 충청지역 66명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실습병원 형태로는 각각 대학부속병원 66.7%인 343명, 종합병원 29.2%인 150명, 준 종합병원은 21명인 4.1%로서 대학부속병원으로 임상실습을 나간 학생이 제일 많은 비율을 이루고 있다.

Table 1에서 실습대상 지역에 따른 촬영실의 환경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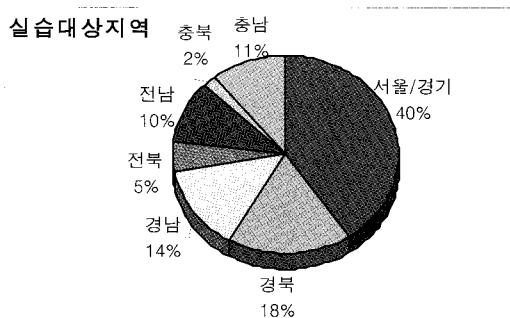


Fig. 1. 지역별 임상실습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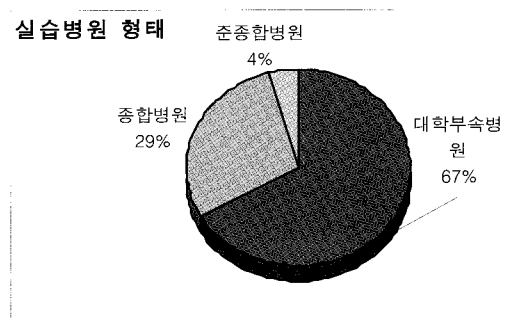


Fig. 2. 병원형태별 실습인원

Table 1. 실습대상 지역에 따른 촬영실의 환경상태

변수이름	χ^2 - 검정통계량	자유도 (df)	P-value
촬영실의 청결정도	38.256 ^a	18	0.004
촬영장비 및 보조기구의 청결정도	41.805 ^a	24	0.014
촬영장비의 정도관리(QA) 시행 유·무	41.398 ^a	24	0.015
촬영 시 이용되는 환자 가운의 청결상태	52.171 ^a	24	0.001
냉·난방 및 환기 상태	24.419 ^a	24	0.205
조명 및 실내분위기	19.500 ^a	24	0.725

Table 2. 업무능력 정도

변수이름	χ^2 - 검정통계량	자유도 (df)	P-value
방사선사 선생님의 전문적 지식 소유 정도	28.803 ^a	18	0.051
방사선사 선생님의 업무에 대한 숙련도	29.246 ^a	18	0.045

Table 3. 의료서비스 정도

변수이름	χ^2 - 검정통계량	자유도 (df)	P-value
방사선사 선생님의 복장 청결정도	20.249 ^a	24	0.683
환자에 대한 공손함 정도	48.788 ^a	24	0.002
촬영순서가 잘 지켜지는지 여부	26.080 ^a	24	0.349
촬영 과정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지 여부	40.196 ^a	24	0.020
환자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방어를 잘 해주는지 여부	34.665 ^a	24	0.074
의사와의 상호 협조가 잘 되는지 여부	33.669 ^a	24	0.091
환자 호명시 사용하는 호칭은?	28.109 ^a	12	0.005

Table 4. 실습생의 소견 영역

변수이름	χ^2 - 검정통계량	자유도 (df)	P-value
졸업 후 방사선 분야에서 근무하고 싶은지의 유무	46.917 ^a	24	0.003
업무상 본 받고 싶은 방사선사 유무	46.718 ^a	24	0.004
실습 후 해당병원에 대한 만족도	39.318 ^a	24	0.025
방사선과에 근무 희망 이유는?	29.312 ^a	18	0.045
방사선과에 근무 불 희망 이유는?	36.703 ^a	18	0.006
임상실습 전후로 방사선 분야에서 근무 희망 변화 정도	25.864 ^a	12	0.001
임상실습 병원의 근무시간 정도	68.003 ^a	24	0.000
방사선사의 업무량 정도	56.408 ^a	24	0.000

태 영역에서 촬영실의 청결도를 묻는 질문에서 전국 평균 71.2%의 학생들이 매우 청결 또는 청결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울, 경남, 충북지역에서만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청결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때의 P값은 0.004로 매우 유의하였다. 또한 환자 가운의 청결상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57.8%의 학생들만이 매우 청결 또는 청결하다고 하였으며, 이때의 P값은 0.001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촬영장비의 QA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48.3%의 학생들이 보통 또는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이때 P값은 0.015로 유의하였다.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82.9%인 426명의 학생들이 숙련도가 매우 많다, 또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P값은 0.045로 유의하였다. 지역별 백분율에 있어서는 경남, 전북, 충북, 충남지역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지만 전체응답 인원수에 대한 비율은 많지 않았다 (Table 2).

학생들의 눈에 비친 방사선사 선생님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문으로 Table 3에서 방사선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공손함으로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67.4%인 346명의 학생이 환자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한다고 답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전남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P값은 0.002로 매우 유의하였다. 방사선사 선생님이 촬영 시 환자에게 촬영과정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해주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51.4% 정도의 학생들만이 촬영과정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였으며, 서울, 전북, 충남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때 P값이 0.020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방사선사 선생님이 환자를 호명 시 84.8%가 "~님"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였으며, P값은 0.005로 매우 유의하였다.

Table 4는 실습생 당사자들에 대한 소견영역으로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들에게 졸업 후 방사선 분야에서 근무하고 싶은지의 유무를 질문 한 결과 "매우 많다"와 "많다"가 각각 20.2%, 42.2%로 "없다"와 "전혀 없다"와 "없다"가 각각 4.7%와 1.9%로 방사선 분야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났지만, 30.9%의 학생들은 방사선사를 자신의 직업으로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다.

실습 후 해당 병원에 방사선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45.4%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비슷한 비율인 41.4%의 학생들은 보통이라고 대답하여 불만족하다는 의견보다는 훨씬 많지만 만족하다는 의견이 50%가 되지 않았으며, 이때의 P값은 0.025로 유의하였다.

방사선과에 근무하고 싶다고 답한 398명 중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보람이 있어서"와 "근무여건이 좋아서"가 각각 30.2%와 32.9% 이었고, 근무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116명 중 44%가 "적성이 맞지 않아서"라고 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9.3%의 학생들은 "급여가 낮기 때문"이라고 하여, 급여 수준보다는 적성의 적합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후 방사선과에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의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가 14.4%, "많아졌다"가 40.9%, "차이가 없다"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사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에 관한 질문에서 73.5%의 학생들이 적당하다고 하였고, 57.2%는 방사선사 선생님의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각각의 P값은 0.000과 0.000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IV 결 론

본 설문 6개 영역 26개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병원 방사선과 촬영실은 청결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환자 가운의 청결 유지와 정도 관리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관심과 시간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업무의 숙련도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보편적으로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촬영과정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환자에게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환자 호명 시 84.8%가 "~님"이라고 부른다고 하여 매우 고무적이라고 사료된다.
4. 학생들에게 향후 방사선 분야에 근무의지는 묻는 질문에서 근무의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미온적인 의사표시자도 30.9%이었고, 임상실습 종료 후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과반수 이하의 학생들만이 만족하다고 하여 학생들이 만족한 임상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좀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료 방사선사의 위상과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존의 방사선 분야에서 근무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5. 방사선과 근무 희망 이유에서 급여보다는 적성과 근무여건을 중요시하여 업무에 대한 질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6. 의료 방사선학을 공부하였지만 방사선 분야에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이유 중 "적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임상실습 후에도 근무하고 싶은 생각의 차이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적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7. 방사선사 선생님들의 업무시간 정도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업무량에 대하여는 과중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방사선사 업무량의 과다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대두될 수 있고, 방사선과에 좀더 많은 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자본을 가진 병원이국내에도 진출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얻은 결과를 볼 때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이 평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사선과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들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설문 조사에 있어 실습병원의 지역별, 실습병원 형태의 빈도수를 같게 하기가 어려운 점과 개인병원이 표본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점이 아쉬우며 추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결과를 보고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강원한 : 방사선 진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이용자의 인식 및 만족도 대한방사선사협회지 Vol. 21, No. 1, 1995
2. 김승철 : 진단방사선과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89
3. 박대순 : 의료불만의 발생원인 및 개선방향. 대한병원협회지, 18(7,8), 1989

4. 박맹조 : 방사선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86
5. 박영선 외 : 방사선사의 근무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방사선기술학회지, 9(1), 1986
6. 송재홍 : 전국 보건소근무 방사선사의 실태 및 직무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88
7. 유승홍 : 양질의 의료관리. 수문사, 1993
8. 이태섭 : 조직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정책개발대학원, 1992
9. 정순규 : 방사선진료 환자와의 대화, 방사선사협회 제27회 전국학술대회 연제집: 33 1992
10. 추성실 : 방사선종사자의 피폭관리와 대책, 대한방사선사협회지, 11(1), 1978
11. Hepperner PP, Pew SS : Effects of diplomas awards and counselor sex on percived expertness, Jun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2), 1977
12. Nakama, M : Protection of the Radiological personal, ISRRRT 4th World congress paper presented, 1969
13. Wolf GA : Nursing Turnover-Some Causes and Solution, Nursing Outlook, 1981